



물 푸 레 작 은 도 서 관

#경기도 성남시 #임대료, 자산취득비 지원

물푸레나무같은 물푸레 작은도서관

물푸레 작은도서관은 2007년 3월에 개관하여 10살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편히 가서 책을 볼 공간도, 엄마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 방도 없는 것이 아쉬웠던 마음에서 시작되어, 금광동 한 편에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곳, 엄마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고자 물푸레 작은도서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푸레나무처럼 ‘푸르고 단단하게 마을 속에 함께’ 하라고 물푸레 작은도서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

물푸레 작은도서관은 문화적으로 열악했던 환경에서 작지만 아이들과 엄마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문화적 영양을 공급해주고, 지역민들과 함께 마을 축제를 하며 마을과 하나가 되는 역할을 10년째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금광1동 골목 안에 터를 잡고 마을의 사랑방으로써, 아이들의 놀이터로써 자리매김하다 재개발로 2017년 8월 금광2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어린이와 여성들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마을의 사랑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물푸레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문제가 큰 어려움입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결하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긴급지원119의 임대료 지원덕분에 임대료 걱정 없이 몇 달 동안 오롯이 도서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여성 및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따뜻한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심적 여유가 생겨 오시는 분들에게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도서관 활동에 집중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금빛마을 새롭게 한바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금광 2동 주민센터 동중 학부모회, 지역 예술가팀과 함께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한 바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여 매회 15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고, 보드게임, 캘리그래피 등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으로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을 때는 도서관에서 이런 일도 하나며 감사인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하면서 쓰레기가 많은 곳에 화단과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함께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킴이가 되어서 쓰레기가 보이면 저희에게 전화로 알려줄 때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밤에 잠을 안자고 나가서 지키셨다고 하셨을 때도 몽클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몽클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문화체험수업을 통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며 이런 도서관수업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생활만하다 처음 문화체험수업을 들으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며 태어

나서 이런 걸 처음 해보신다고 즐거워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을 파티를 할 때 또 다른 분은 아이들을 키우며 저녁시간에 처음 나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좋아하셔서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물푸레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하여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으나 역량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던 게릴라 가드닝이 호응이 좋아서 게릴라 가드닝을 좀 더 알차게 하고 싶고, 보드게임이 호응이 좋아서 좀 더 심도 깊은 보드게임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힘이 되고자 합니다. 금광2동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마을의 사랑방으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합니다. 나아가 마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아이들과 엄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도서관 활동가 선생님들 힘내세요!